

## 신라의 지배 공간의 확장과 제의의 통합

The Expansion of Sillas Ruling Space and the Integration of Sacrificial Rituals

---

저자 (Authors)	한영화 Han, Young-hwa
출처 (Source)	<a href="#">역사와 담론 89</a> , 2019.1, 1-41(41 pages) <a href="#">HISTORY AND DISCOURSE(Journal of Historycal Review) 89</a> , 2019.1, 1-41(4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호서사학회</a> The Ho-Suh Historical Associ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1279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12793</a>
APA Style	한영화 (2019). 신라의 지배 공간의 확장과 제의의 통합. 역사와 담론, 89, 1-4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1/09/23 14:0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의 지배 공간의 확장과 제의의 통합

한 영화\*

- I. 머리말
- II. 공간의 확장과 망제
- III. 사직의 성립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신라의 祀典 체계의 성립 시점부터 각 제사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三山을 비롯한 명산대천만을 중국의 사전체계인 대·중·소사로 편제했다는 점과, 비교적 늦은 시점으로 생각되는 선덕왕대 사직의 설치였다. 산천제와 사직제는 신라의 국가 발전과 맞물려서 오랜 시간동안 조직화된 제사였다. 山川神과 地神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가 국가 제사로 편입되는 과정은 신라의 지배영역의 확장과 함께 이에 딸린 제사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라가 주변의 소국을 병합하고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은 왕의 순수나 순행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순수나 순행이 중국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정치적 행위라고 한다면, 이사금 시기에 순수나 순행과 함께 행해졌던 望祭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望은 실질적인 지배 영역을 주요 산천으로 구현한 개념이었다. 순수나 순행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

하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확보뿐만 아니라 주변 산천을 제사지냄으로써 지역의 제사도 통합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망제는 ‘사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

한편, 신라는 고대국가로 형성,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하늘의 후손이자, 왕실의 조상으로서 위상을 갖고 지배세력 내에서 이를 공유, 구심점으로 작동하였다. 지신에 대한 제사는 삼한에서 행해졌던 5월, 10월제나 소도 신앙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신앙은 산천신에 대한 신앙과 궤를 같이 한다. 지신과 산천신에 대한 제사는 결국 중앙에 의해 장악되면서 계서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때문에 명산대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소사가 편성된다. 이와 함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제사가 존재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의 사전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신궁의 지신에 대한 제사와 명산대천의 대중소사가 일정 정도 공유됨으로써 사직의 설치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선덕왕대 완성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望祭, 사직, 산천제사, 祀典, 大祀·中祀·小祀

## I. 머리말

신라의 제사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 제사지에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중묘지제’로부터 시작하여 농경이나 水투에 관련된 제사, 특별한 규정에 의한 제사 그리고 삼산을 비롯한 명산대천을 대상으로 한 대사, 중사, 소사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중국, 특히 당의 제사체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도 있고, 다른 면모도 가지고 있다. 신라의 제사 체계가 어느 시기에 형성, 확정되었는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신라 전시기에 걸쳐 생

성, 확정되고 삽입되고 조정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제사지에 편입되었던 제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했던 제사임은 틀림없다. 이를 “국가제사”라 칭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물론 “국가제사”의 정의는 논자마다 다르다. 국가권력의 주도 하에 국가적인 관심 속에 치러지며, 해당 공동체의 제례 중 손꼽힐 수 있는 위상과 비중을 가진 제사라든지<sup>1)</sup> 국가가 공인하는 신에 대해 국가권력이 주체가 되어 국가적 목적에 따라 치러지는 제사를 통틀어 말하기도 하며,<sup>2)</sup> 더 나아가 종교행위에 공적인 성격을 부여하여 집단 공공의 목적이나 지배층의 당위성을 표방하는 것으로, 개인차원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민간신앙’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정되기도 한다.<sup>3)</sup> 국가제사를 설명하는 데에 ‘국가권력’과 ‘공공의 목적’, ‘지배층의 당위’ 등이 주요한 핵심어로 작동한다. 여기서 좀더 엄밀한 의미로 국가제사를 규정하는 경우는 제사대상신, 주제자, 제사시기, 참여집단, 봉헌물 등 제사 전반의 여러 문제를 국가가 일정한 규정을 정하여 관여하는 제사로 파악하거나,<sup>4)</sup> 제사 대상, 제사 결과가 미치길 바라는 범위와 수준, 제사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 등에 따라 국가차원의 제사와 왕실 차원의 제사로 구별해야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5)</sup> 고대국가에서 행해진 제

- 
- 1) 姜辰垣, 「高句麗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5, 2쪽.
  - 2) 서영대, 「고구려의 국가제사-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0, 2003, 2쪽.
  - 3) 조우연, 「4~5세기 고구려 국가제사와 불교신앙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10, 10-14쪽.
  - 4)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15쪽.
  - 5) 이장웅, 『백제 사비기 국가제사와 불교사원』, 2016, 12~13쪽 ; 이장웅은 동명묘나 구태묘는 왕실의 사적 제사 성격으로 천지, 오제 3산, 5악 제사는 국가제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나희라 역시 조선에서의 국가의례를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인 國行儀禮와 왕실 차원의 內行儀禮로 구분한 최종성의 견해에 동의하여(최종성,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사에서 왕실제사와 국가제사를 엄밀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는 하나, 국가가 형성,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제사가 체계화되는 기준점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국가 권력이 개입되어 제사를 공식화하고, 제사의 시행에 일정 정도의 규정과 행정이 수반되는 국가제사의 성립과 체계화는 고대국가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그 과정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제사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인데, 주변 소국을 정벌, 병합함으로써 기존의 제사를 수렴, 독점하고, 관념을 공유하는 행위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신라의 국가 성장에 따른 영역 지배의 확장과 제사 체계의 연관성의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지배 영역의 확장과 맞물려 신라의 사전체계를 국가 권력이 장악하여 힘을 뻗칠 수 있는 영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앙적 의미뿐만 아니라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sup>6)</sup> 혹은 국가의 중앙을 중심으로 전국 각 방면의 국가적 위협 요소를 진압하는 것으로<sup>7)</sup> 파악하는 견해들은 제시된 바 있으며,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sup>8)</sup> 대체

---

2002) 시조묘제사와 신궁제사를 국가 차원의 조상제사이고, 오묘제사는 왕실 차원의 조상제사로 구분하였지만, 실제로 신라에서 조선과 같은 수준의 분류는 어려운 일이라 지적하고 있다.(나희라, 같은 책, 15쪽 주3, 주 4 참조)

6) 최광식, 「新羅 大祀·中祀·小祀의 祭場 研究」, 『역사민속학』 4, 1994, 66-67쪽.  
7)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210쪽.  
8) 浜田耕策, 「新羅の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 『响沫集』 4, 1984, 157쪽 ;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1992, 95쪽 ;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祀典)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2007, 240-242쪽

로 신라 사전체계의 특징인 삼산을 비롯한 명산대천을 대·중·소사로 편성했던 것에서 산천제사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던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가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각 지역의 제사를 수렴하였고, 그 실체는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신라의 지배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순수나 순행을 검토하고 이에 병행되는 望祭를 통해 주요 산천제사에 대한 장악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산천제사를 地神祭와 연결하여 신라의 사전체계에 반영되는 양상을 거칠게나마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공간의 확장과 망제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혁거세의 신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6촌의 촌장들의 설화이다. 6촌의 촌장들은 『삼국유사』의 단편적인 언급에 의하면 ‘천신 하강’ 구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알천 양산촌의 촌장인 알평은 처음 표암봉에 내려왔고, 돌산 고희촌의 소벌도리는 형산에, 무산 대수촌의 구례마는 이산에, 취산 진지촌의 지백호는 화산에, 금산 가리촌의 지타는 명활산에, 명활산 고야촌의 호진은 금강산에 내려왔으며, 각각 이씨, 정씨, 손씨, 최씨, 배씨, 설씨의 조상이 되었다.<sup>9)</sup> 이들은 봉우리나 산으로 내려온(降) 것으로 표현되었으며, 『삼국사기』에서는 혁거세가 탄생과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 일정 정도 간여하였다. 6부의 성씨 문제 등 혁거세 신화와의 연관성과 삼입 시기에 대해서는 후대의 재조정이 있었을 가능성은<sup>10)</sup> 충분하지만, 이러한 6촌의 시조 전승과

9)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 혁거세왕.

10) 전덕재, 『新羅六部體制 研究』, 일조각, 1996, 13쪽.

혁거세 신화의 결합은 혁거세의 건국신화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흡수,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통합과정은 남해차차웅 3년 시조묘를 세웠던 것을 시작으로<sup>12)</sup> 이후 왕들이 즉위한 다음 해 정월2월에 시조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어지며, 시조는 하늘의 후손이자, 왕실의 조상으로서의 위상을 가짐으로써 신라 지배세력내에서 공유, 구심점으로 작동하였다. 경주를 중심으로 6부 일대는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천신 신화의 독점과 이를 통한 공유 현상으로 시조묘 제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로국의 주변 소국의 정벌, 통합 과정에서도 제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할 점들이 있다. 통치자의 정치 활동과 더불어 제의 활동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행이다.

<표 2>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신라 상대의 순행 관련 기사

왕	시기		내용	대상지역	조치	기타
혁거세거서간	17년(41)		巡撫	6부	農桑의 권장	
유리니사금	5년(28)	11월	巡幸	國內	위문(鰥寡孤獨老 등), 給養	
파사니사금	2년(81)	3월	巡撫	州郡	진휼, 錄囚	
	14년(93)	2월	巡幸	古所夫里郡	위문(高年), 곡식하사	
	27년(106)	정월	幸	押督	진휼	

11) 천손족임을 내세웠던 귀족세력의 시조전승은 점차 강화되어가는 왕권하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조전승의 원형을 고집하며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국가나 왕실에 대한 자기 가문의 기여도를 과시하는 것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徐永大,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204-213쪽)

1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3년 1월.

일성니사금	5년(138)	10월	巡	북쪽		태백산 제사
아달라니사금	4년(157)	3월	巡幸	長嶺鎮	戍卒 위로, 征袍 하사	
	9년(162)		巡幸	沙道城	戍卒 위로	
벌휴니사금	3년(186)	정월	巡幸	州郡	풍속을 살핌	
나해니사금	13년(208)	2월	巡	서쪽 郡邑		
	31년(227)	2월	巡狩	서남 郡邑		
조분니사금	6년(235)	정월	巡	동쪽	撫恤	
미추니사금	3년(264)	2월	巡幸	동쪽		望海
		3월	幸	黃山	진휼	
	7년(268)		巡		위문(百姓苦患)	가뭄 사신 5인 파견
	23년(284)	2월	巡撫	서쪽의 諸城		
기림니사금	3년(300)	2월	巡幸	比列忽	위문(高年, 貧窮), 곡식 하사	(3월) 태백산 망제
자비마립간	12년(469)	7월	巡撫	서쪽, 수해입은 州郡		홍수
소지마립간	3년(481)	2월	幸	比列城	戍卒 위로, 征袍 하사	
	5년(483)	10월	幸	一善界	위문(遭災百姓), 곡식 하사	홍수
	10년(488)	2월	幸	一善郡	위문(鰥寡孤獨), 곡식 하사 / 지나는 지역의 曲赦	
	18년(496)	8월	幸	南郊	농사짓는 것을 봄	
	22년(500)	9월	幸	捺已郡		郡人 碧花를 얻음
법흥왕	11년(524)	9월	巡	南境	개척	

8 역사와 담론 제89집

진흥왕	12년(551)	3월	巡狩	娘城		
	16년(555)	10월	巡幸	북한산	강역의 拓定 /지나는 지역의 租調 면제와 曲赦	
선덕왕	4년(635)	10월	巡撫	州縣		이찬 수품과 용수 파견

신라 상대에 순행과 관련해서 『삼국사기』에는 27건의 기사가 확인된다. 표현에서는 巡幸, 巡撫, 巡狩, 巡, 幸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광역의 순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순행은 『예기』 왕제에 의하면 천자에 의해 5년에 한 번 행해진다.<sup>14)</sup> 그 과정에서 柴祭와 望祭, 제후에 대한 朝覲, 고령자에 대한 위문과 풍속의 관찰, 音律禮樂制度·衣服의 교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신라의 순행 또한 중국의 순행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고령자 등에 대한 위문과 곡식 하사, 진휼, 풍속의 관찰, 망제 등 단편적인 내용으로나마 중국에서 행해졌던 순수나 순행의 구성 요소와 유사한 패턴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더욱이 순행이나 순수는 중국 고대사회에

13) 경전에서 규정된 순수와는 달리 실질적인 순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김영하는 중국 秦代에 행해진 순수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순수를 표현하는 용어의 다양성, 시기의 부정기성, 시기에 따른 순수 기능의 변화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인 성격이 강한 협의의 전형적 순수가 아니라 광역의 실질적 순수의 의미로 신라의 순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金瑛河, 「新羅時代 巡狩의 性格」, 『민족문화연구』 14, 1979, 210-212쪽)

14) 『禮記注疏』 권11 「王制」5, “天子五年一巡守 歲二月東巡守至于岱宗 柴而望祀山川 觀諸侯 問百年者就見之 命大師陳詩以觀民風 命市納賈以觀民之所好惡志淫好 命典禮考時月定日同律禮樂制度衣服正之 … 五月南巡守至于南嶽如東巡守之禮 八月西巡守至于西嶽如南巡守之禮 十有一月北巡守至于北嶽如西巡守之禮歸假于祖禰用特”

서 최고 통치자가 수행하는 통치관행의 하나로서 천자가 수도를 떠나 지방 제후를 직접 통제하던 통치행위였으며,<sup>15)</sup> 진·한대 이르면서 제후 통제의 기능보다 점령지에 대한 영역 관리와 통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던 것을<sup>16)</sup> 감안한다면, 혁거세거서간대의 “6부”와 유리나사금대의 “국내” 등 사로국 범위 안에서 순행을 시작으로 해서 북쪽,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에 이르기까지 주변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순수나 순행의 과정은 중국에서 행해졌던 순행과 동일한 목적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순수나 순행의 목적도 역시 영역 확장과 함께 복속된 지역의 관리·통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순수나 순행과 함께 진행되었던 위문이나 진휼, 조세감면, 행정의 완화 등의 조치는 복속된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이와 함께 벌휴나사금 3년과 같이 “풍속을 살폈다.”고 하는 것은 音律禮樂制度·衣服의 교정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풍속을 살피는 것은 복속된 지역의 상이한 문화적 습속과 전통의 차이를 제거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sup>18)</sup> 순수나 순행을 통해 사로국 중심의 禮俗, 제도 등을 주변에 확장시키는 방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는 토벌의 빌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19)</sup>

15) 金瑛河, 앞의 논문, 210쪽(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2, 179쪽)

16) 金瑛河, 같은 책, 179-180쪽.

17) 金瑛河, 앞의 논문, 220쪽

18) 洪承賢, 「中國 古代의 移風易俗-皇帝와 士大夫의 關係를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7-8쪽. 홍승현에 의하면 풍속 교정은 중국 고대의 황제들에게는 어떤 정치행위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다고 한다. 황제는 종래의 민간질서를 제거하여 황제의 법령만이 유일한 규범이 되는 사회적 풍기를 만듦으로써 황제라는 유일 권력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황제권력의 외적 확산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 A-1) 파사니사금 25년(104) 가을 7월, 悉直이 叛하였다. 군사를 보내 토벌하여 평정하고, 그 남은 무리들을 남쪽의 변방으로 옮겼다.<sup>20)</sup>
- 2) 일성니사금 13년(146) 겨울 10월, 押督이 叛하였다. 군사를 보내 토벌하여 평정하고, 그 남은 무리들을 남쪽의 지방으로 옮겼다.<sup>21)</sup>

사료 A-1)의 실직국은 파사니사금 23년(102)에 항복해온 소국이였다.<sup>22)</sup> 실직국은 음즙벌국과 강역을 다투다가 파사니사금에게 이에 대한 판결을 요청했고, 이사금은 금관국의 수로가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 하여 이를 수로왕에게 넘겼으며, 결과적으로 음즙벌국의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수로왕과 한기부의 갈등 상황에 음즙벌국이 개입되면서 결국 신라에 항복해 온 것이었다. 실직국은 현재 강원도 삼척으로 비정된다. 압독국 역시 실직국과 동일하게 파사니사금 23년에 항복하였다. 『삼국유사』 왕력편과<sup>23)</sup> 『삼국사기』 지리지에<sup>24)</sup> 의하면 지마니사금대(112~134) 멸하여 취하였다 하였고, <표 1>에서처럼 파사니사금 27년(106)에는 압독 지역에 대해 순행과 함께 진흥이 이루어졌다. 압독국은 현재 경상북도 경산으로 비정

- 
- 19) 『예기』 왕제에 의하면 산천과 神祇를 받들지 않거나, 종교에 불순하거나, 예악, 제도, 의복을 고친 경우가 토벌의 이유가 된다.(『禮記注疏』 권11 「王制」5, “山川神祇有不舉者為不敬 不敬者君削以地 宗廟有不順者為不孝 不孝者君紕以爵 變禮易樂者為不從 不從者君流 革制度衣服者為畔 畔者君討 有功德於民者加地進律”)
- 2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니사금 25년 7월, “秋七月, 悉直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鄙.”
- 2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일성니사금 13년 10월, “十三年, 冬十月, 押督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地.”
- 2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니사금 23년 8월.
- 23) 『삼국유사』 권1 「왕력」.
- 24)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良州 獐山郡.

되며, 『삼국사기』 제사지에 기록된 五岳 중의 하나인 부악에 해당한다.<sup>25)</sup> 그러나 실직국은 이사금 25년에討平되었고, 압독 역시 일성니사금대 討平되었다. 반란에 대한 진압은 이들에게 아직까지 이탈이 가능한 독립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진압을 통해 피정복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토평의 계기는 이들이 신라의 산천과 神祇를 받들지 않았거나, 예속이나 제도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결과는 진압과 사민을 통한 지역 세력의 와해였다.

순수나 순행이 확장된 영역에 대한 관리나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면 한 가지 더 거론해야 할 것은 제사의 장악이다.

- B-1) 일성니사금 5년(138) 겨울 10월, 북쪽으로 순행하고서 태백산에 제사지냈다.<sup>26)</sup>
- 2) 미추니사금 3년(264) 봄 2월, 동쪽으로 순행하여 바다를 보며 제사지냈다.<sup>27)</sup>
- 3) 기림니사금 3년(300) 2월 비열홀에 순행하였다. 친히 나이 많은 사람과 빈곤한 사람들을 위문하고 곡식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3월,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를 치렀다. 낙랑, 대방 양국이 귀복하였다.<sup>28)</sup>

25) 신라 상대에는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하여 五岳이 설정되었으나, 중대 이후부터 영토가 확대되면서 국토의 四至에 있는 산들로 변화된 것으로(李基白, 앞의 책, 204-207쪽) 제사지의 五岳은 중대 이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2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일성니사금 5년 10월, “冬十月, 北巡親祀大白山”.

27)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미추니사금 3년 2월, “三年, 春二月. 東巡幸望海”.

28)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기림니사금 3년 3월, “三月, 至牛頭州, 望祭太白山. 樂浪帶方兩國歸服”.

사료 B는 <표 1>에서 특히 순행과 관련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사를 다시 서술한 것이다. 북쪽으로 태백산, 동쪽으로 바닷가, 또다시 태백산이 언급되어 망제를 행하고 있다. 사료 B-1)은 “親祀”, B-2)는 “望海”, B-3)은 “望祭”라 표현되어 있지만, 모두 순행 중에 행해졌던 望祭라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고대 중국의 순수나 순행에서는 불을 피워 하늘에 제사지내 천자가 순수하러 왔음을 고하는 柴祭와 산천 중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대상들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는 望祭가 행해졌다. 시제는 하늘이 높이 있기 때문에 뿔나무를 태워 연기가 위로 도달하게 하는 것이고, 망제는 산천이 멀리 있기 때문에 바라보며 제사지내는 것이었다.

‘望’은 중국의 周 이후 주왕과 제후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을 그 안의 주요 산천으로 구현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望은 四土나 四方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산천을 대상으로 하었다고 한다.<sup>29)</sup> 望의 개념은 춘추전국시기를 거치면서 秦의 四時, 齊의 八神과 같이 각 열국마다 지배 영역을 총괄하는 제사체제로 구체화되었다.<sup>30)</sup> 이는 최고의 천신을 중심으로 境內의 제사를 편제하려는 움직임이었던 것이고, 秦의 경우 순수를 통하여 모든 지역의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이념적인 통일의 추진과 제도적 편제를 통해<sup>31)</sup> 지배 영역 안의 여러 신들을 계층화하여 이를 장악해나가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사료 B의 순수나 순행과 관련된 망제는 중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지배자가 가진 비슷한 정치적 행위로 태백산과 동해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천을 ‘望’함으로써 지

29) 金龍濤, 「秦·漢 帝國의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8~29쪽.

30) 같은 논문, 32쪽.

31) 같은 논문, 38쪽.

배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여지는 충분하다.<sup>32)</sup> 태백산은 현재 강원도 삼척과 경북 북부 지방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삼국사기』 제사지에 의하면 五岳의 하나로 中祀에 편입되어 있다. 태백산과 동해에 대한 순수나 순행과 망제는 실질적인 지배력 확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주변 산천을 제사지냄으로써 지배영역의 제사도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sup>33)</sup> <표 1>에서의 순수나 순행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순수나 순행을 통한 망제는 점차 ‘四方’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C-1) (지증왕) 4년(503) 겨울 10월,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나라의 이름을 정하지 않아 혹은 斯

32) 다만 해공왕 12년(776)이나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해공왕12년 1월 경문왕 4년(864)에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경문왕 4년 2월 감은사에 행차하여 “望海”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때의 망제는 동해 용왕신앙과 연결하여(安啓賢, 「燃燈會攷」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東國文化史, 1959, 507쪽) 농사의 풍흉이 풍신 내지 용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 믿어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로 파악하기도 한다.(金瑛河, 앞의 논문, 1979, 219쪽) 문무왕이 유언을 남겨 왜병을 퇴치하고 호국하기 위하여 동해의 용이 되었고, 신문왕은 부왕인 문무왕을 위해 감은사를 세웠으며, 용왕의 선물인 만파식적과 흑옥대를 받았던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삼국유사』 권2 「기이」2 만파식적) 신문왕 이래의 감은사 행차와 망제는 문무왕의 유언과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호국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3) 신라 왕의 순수나 순행은 신라의 통치영역이 단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항상 변경의 요충지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이나(김영하, 앞의 책, 190쪽) 중사의 祭場이 국토 주위를 둘러가며 국경을 이루는 양상을 보여 국토 방위의 목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신라 祀典에서의 名山大川에 대한 제사는 신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 목적도 담보하고 있었다는 견해는(이기백, 앞의 책, 215쪽 ; 「新羅 大祀·中祀·小祀의 祭場 研究」, 66-67쪽) 무엇보다 중요하다.

羅라고도 하고 혹은 斯盧라고도 하고 혹은 新羅라고도 하였습  
니다. 신 등이 생각건대 新은 德業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  
고 羅는 四方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이름으로 삼는 것  
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라고 하였다.<sup>34)</sup>

- 2) 무릇 純風이 일지 않으면 世道가 참됨에 어긋나고, 그윽한 德  
化가 퍼지지 않으면 邪惡한 것이 서로 경쟁하도다. … 또 하늘  
의 은혜를 입어 운수를 열어 보여주며, 명명한 가운데 神祇에  
감응되어 符命에 應하고 썸대에 적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四方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  
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和使가 서로 통하여 오도다. 아래  
로 스스로 헤아려 新舊民을 撫育하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왕  
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베풀어짐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戊子年 가을 8월에 管境을 巡狩하여 민심  
을 살펴서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고자 한다. 만약 충성과 신  
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고 재난의 機微를 살피고,  
적에게 용감하고 싸움에 강하며,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功  
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과 黻(상품)을 상으로 더하여 주고 공  
훈을 표창하고자 한다. …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sup>35)</sup>

사료 C-1)은 지증마립간대 그간의 나라의 이름이 사라, 사로, 신  
라라 불렸던 것에 대해 공식적인 명칭을 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이다. 여기서 ‘신라’라는 이름을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미를 ‘덕  
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는 의미로 확정하였다. 지  
증마립간대에는 소지마립간대부터 행해졌던 제도의 마련 및 정비

- 3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4년 10월, “四年, 冬十月, 羣臣  
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臣等以  
爲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宜矣.”
- 35) 해석은 盧重國의 해석문을 참고하였다.(盧重國, 「磨雲嶺 眞興王巡狩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 1992, 89-90쪽)

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소지마립간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官道를 수리하게 하였으며,<sup>36)</sup> 京師에 시를 개설하여 사방의 물자를 통하게 하였다.<sup>37)</sup> 이를 통해 지증마립간은 지방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으며,<sup>38)</sup> 순장에 대한 금령,<sup>39)</sup> 상복법의 제정 및 반포<sup>40)</sup> 등 국가체제와 관련된 제도의 규정이나 세부적인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결국 소지마립간대·지증마립간대 이전부터 신라인 스스로 ‘사방’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sup>41)</sup> 이는 신라의 정치적 발전과 지배 공간의 확장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계관의 표방은 바로 제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인데, 사료 C-2)의 내용이 연관된다.

사료 C-2)는 진흥왕 29년(568)에 세워진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로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창녕신라척경비>, <황초령신라진흥왕순수비>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여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다. 대체로 구성은 題記-순수관련 기사-廻駕(隨駕)관련 기사-隨駕人名으로<sup>42)</sup> 사료 C-2)는 순수의 당위성과 비의 건립배경, 민심의 探訪과 포상 약속 등의 내용이다. 진흥왕은 天神地祇의 도움으로 사방으

3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3월.

3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2년 3월.

3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6년 2월.

3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3년 2월.

4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5년 4월.

41) 노동필은 사방 개념의 형성은 곧 신라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확립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였다.(盧鏞弼,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1996, 146쪽) 임평섭 역시 진흥왕대 순수비에서의 ‘사방’은 진흥왕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한강유역과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함으로써 새롭게 차지한 영토에 대한 관리와 지방민에 대한 통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하였다.(임평섭, 「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왕 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북한산비를 중심으로 살펴본 巡狩 행적에서의 祀-」, 『신라문화』 43, 2014, 98쪽)

42) 盧重國, 앞의 논문, 89쪽.

로 영역을 확장하여 인민과 토지를 획득하고 이웃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은 사실을 밝혔다. 소지마립간-지증마립대부터 이어지는 ‘사방’은 진흥왕의 영토개척과 관련해서 순수비에도 반영되었다. 원래 중국에서의 ‘사방’은 정치적 의미로서 천하사상의 원형이지만, 단순한 지역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百神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사 대상을 망라하는 종교적 기원을 갖는 것이었다고 한다.<sup>43)</sup> 秦의 국가제사에서 ‘사방’이 제사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지배영역을 신격화한 ‘사방’을 제사지낸 것이지만, 여기서 ‘사방’은 국가 권력이 포괄해야 할, 확대·변화하는 세계의 표상일 뿐, 특정 씨족의 족신이나 산천 등과 같이 실존하는 대상은 아니었다고 한다.<sup>44)</sup> 하지만 漢代 武帝와 宣帝를 거치면서 주요 산천 제사에 대한 장악을 통해서 그 지배 영역을 확인하고, 이렇게 확보된 ‘天下’를 중앙과 사방으로 구성하여 五岳과 四瀆이라는 실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sup>45)</sup>

소지마립간대를 기반으로 지증마립간대 표방되었던 ‘사방’은 그야말로 국호로서 望의 추상적 형태인 ‘사방’일 수 있을 것이다. 소지마립간대 우역의 설치와 관도의 수리, 시장의 설치는 지증마립간대의 지방제도 실시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각종 제도의 마련과 정비는 법흥왕대 울령 반포로 이어졌다. 추상적 형태의 ‘사방’은 실질적인 내용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sup>46)</sup> 사료 C-2)에서처럼 진흥왕대 순수를 통해 ‘사방’은 조금더 확대된 형태로 산천 제사를 망라한다는

43) 池田末利, 『中國古代宗教史研究』, 東京:東海大學出版會, 1989, 132쪽.

44) 金龍滌, 앞의 논문, 28~29쪽.

45) 같은 논문, 51-55쪽.

46) 『周禮』 春官 小宗伯에 의하면 “兆五帝於四郊四望四類亦如之”라 하였고 이에 대해 정현은 ‘五嶽·四鎮·四瀆’이라 하였다. 이로 본다면 단언할 수는 없으나, 신라에서 나타나는 사방의 실체는 오악, 사진, 사독에 대한 제사로 점차 구체성을 띠며 체계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진흥왕 순수비가 대체로 산을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왕의 순수행차시 沙門, 道人, 占人, 藥師와 같은 제례 수행의 담당자와 동행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7)</sup> 진흥왕은 순수에서의 시제와 망제, 즉 하늘에 왕이 왔음을 고하고 주변 산천을 제사지냄으로써 ‘사방’으로 개척한 영토를 확인받고, 그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즉 망제를 통해 지역의 산천신을 장악하고 이를 국가제사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산천신 숭배가 지역의 유력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어 지역 사회 내부의 결속과 규범을 유지하고, 이를 매개로 지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었다면, 이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행해지던 제사가 신라 중앙에 의해 국가제사로 포섭되는 과정을 관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방’이었다. 소지마립간대부터 진흥왕대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사방’은 확대된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라의 천하관을 엿볼 수 있지만, 단순한 지리적 방향만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방’의 신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였으며 점차 실질적 의미도 갖는 것이었다.

### Ⅲ. 사직의 성립

앞서는 순수나 순행을 통해 주변 소국을 정복, 병합하는 과정에서 지배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망제를 통해 각 지역의 산천제사를 장악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신라에 의해 장악되는 지역의 실질적인 제사는 무엇이었을까.

47) 임평섭은 <북한산비>를 중심으로 입석의 지리적 위치로서의 ‘산’에 주목하여 국가제사인 산천제사와 연관성을 강조하고, 순수비를 ‘산천제사의 기념물’로 파악하였다.(임평섭, 앞의 논문)

각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천신과 관련된 제사는 사실상 시조묘 제사를 중심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여기서 시조의 의미는 혈연 개념에 입각한 단순한 조상내지 시조가 아니라 광명으로 현현된 천신적 존재였다.<sup>48)</sup> 앞서 언급한 대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신라의 건국신화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6촌의 천강설화는 단편적으로 남아있거나, 혁거세의 신화에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행해졌던 제사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구려의 경우 고국양왕 8년(391) 國社를 세우고 종묘를 수리한 사료에 대해<sup>49)</sup> 국가제사의 일원화, 특히 사직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종묘나 국사가 유교적 예제에 입각한 것인지, 그 실제적 내용은 중국적 예제와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사직은 고구려의 기존 농경신앙을 기반으로 성립했던 것이며, 國社의 성립은 일정 정도 유교적 예제에 입각한 표현임은 틀림없는 듯하다.<sup>50)</sup>

신라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직이 세워진 것은 선덕왕대였다.<sup>51)</sup> 사실상 선덕왕대에 유교적 예제에 입각한 사직이 설립됨으로써 오묘제와 함께 종묘, 사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선덕왕대 이전까지 지신이나 곡식을 대표하는 신에 대한 제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라 역시 기존의 농

48) 나희라, 앞의 책, 71쪽.

49)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고국양왕 8년 3월.

50) 서영대, 「고구려의 社稷과 靈星에 대하여」, 서영대 외,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2005, 40-45쪽. 김두진은 종묘가 왕실의 시조신을 모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國社는 지신으로 대표되는 유화를 모신 것으로 국사의 설립은 즉 지신계의 통합의 결과로 이해한다.(金杜珍,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일조각, 1999, 110-115쪽)

51)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경신앙, 혹은 지신과 관련된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를 토대로 사직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가 선덕왕 이전까지 행해졌던 사직에 준하는 지신 제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신라의 경우 일찍부터 산신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고 전해지는 선도산 신모부터<sup>52)</sup> 남해차차웅의 부인인 운제부인으로 가뭄에 영험이 있는 운제산 성모,<sup>53)</sup> 박제상의 부인으로 남편을 그리다 죽은 치술신모<sup>54)</sup> 등 신모가 모두 산과 관련이 있다. 또한 김유신을 위기에서 구해줬던 세 여성은 각각 奈林, 穴禮, 骨火 세 곳의 호국 산신이였다.<sup>55)</sup> 신라에서의 산신의 부각은 농경지대와 산록이라는 신라의 지형적 조건과<sup>56)</sup> 여신과 산신 숭배 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혁거세의 배우자로 나타났던 알영은 사료상으로는 신모나 성모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찍부터 혁거세와 함께 농사와 양잠을 권하여 지모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sup>57)</sup> 지신 혹은 지모신에 대한 숭배는 다산과 농경의 풍요를 보장하는 제의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그러했을 때, 신라에서의 지신에 대한 숭배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 단편은 『삼국지』 한전에서 찾을 수 있

52) 『삼국유사』 권5 「감통」7 선도성모수희불사.

53) 『삼국유사』 권1 「기이」1 남해왕.

54) 『삼국유사』 권1 「기이」1 나물왕.

55) 『삼국유사』 권1 「기이」1 김유신.

56) 가야에서도 신모로서의 여신숭배와 산신 신앙을 하나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소백산맥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록의 지형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파악된다.(權珠賢, 「加耶文化史 研究」,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23-124쪽) 신라의 경우 가야보다 점더 강하게 나타났던 이유는 지역적 폐쇄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고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성모 신화를 보존하였던 것도 건국신화에 성모 신화가 삽입될 수 있었던 이유로 지적되기도 한다.(박상란,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 2005, 148-149쪽)

5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 17년.

을 뜻하다.

- D-1)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여럿이 모여 노래와 춤을 추며, 술을 마시기를 밤낮으로 하되 쉬이 없었다. 그 춤은 수십인이 모두 일어나 서로 따르는데 땅을 밟으며 구부렸다 치켜들었다를 하면서 손발을 이에 상응하게 한다. 그 가락과 춤은 鐸舞와 유사하다. 10월 농사가 끝나면 또한 이와 같이 한다.<sup>58)</sup>
- 2) 귀신을 믿는다. 국읍에서는 각각 1인을 세워 천신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름하여 天君이라 한다. 또한 諸國에는 각각 별읍이 있는데, 이를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걸어놓으며, 귀신을 섬긴다.<sup>59)</sup>

사료 D는 『삼국지』 동이전 중 한전의 내용이다. 『삼국지』 동이전의 내용은 대체로 3세기 후반 무렵까지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한전은 마한, 진한, 변진으로 구분되어 있는 듯하면서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사료 D는 마한의 구분 하에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韓 전체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D-1)은 음락을 중심으로 5월 파종기와 10월 수확기에 행해지는 제의로 음락 공동체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땅을 밟으면서 행해지는 집단 무용은 지신을 놀려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지신밟기’의 전신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땅을 밟음으로써 지신을 달래고, 춤을 통해 곡식의 성장과 풍요를 바라는 듯한 의식은 음락 단위의 농경제의이자, 지신에 대한 제사이기도 하다. 사료 D-2)는 천신 제사와 소도에 관한 내용이다.

58) 『三國志』 권30 『魏書』30 「列傳」30 東夷 韓.  
 59) 『三國志』 권30 『魏書』30 「列傳」30 東夷 韓.

국읍을 중심으로 천군이 존재하여 천신에 제사지냈다는 내용과 소도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즉 국읍에는 천군이 있어 천신에게 제사지내지만, 별읍에서는 귀신을 제사지냈다는 것이다.<sup>60)</sup> 사료의 이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천신 제사는 천군에게로 수렴, 독점되었고<sup>61)</sup> 나머지는 천신을 제외한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소도에서 신앙된 신은 음락의 경계신이며 나무를 세운 것은 원시적인 경계 표시였다는 지적은<sup>62)</sup> 중국에서의 社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중국에서의 社의 기원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林叢 송배 혹은 樹林 송배로 보기도 하고, 토지신, 조상신, 원시적 사회집단의 聖所 등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다.<sup>63)</sup> 『설문』에 의하면 社는 토지신의 신주를 뜻하며,<sup>64)</sup> 『예기집해』에서는 大社는 천자의 수도에 해당하는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며, 國社는 제후국의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 하였다.<sup>65)</sup> 『주례』에 의하면 25개의 家마

60) 文昌魯,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2000, 274쪽.

김두진은 소도신앙의 대상으로 국읍에서 천군에 의해 천신이 제사되고, 별읍에서는 지모신과 같은 토착부족의 신을 제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金杜珍, 앞의 책, 1985, 107-112쪽)

61) 나희라, 앞의 책, 108쪽 ; 나희라는 천군이 소국 내의 제사체계 속에서 최고의 신으로 천신에 대한 제사를 독점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는 없으나 소국의 중심 읍인 국읍에 거주하는 천군이 천신제사를 주관했다는 것은 소국 내의 모든 제사의 중심이 천군이 주관하는 천신에 대한 제사였기 때문일 것이라 하였다.

62) 孫晉泰, 「蘇塗考」, 『民俗學』 4-4, 1932 ; 孫晉泰,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을유문화사, 214쪽.

63) 社의 기원에 관한 여러 설에 대해서는 守屋美都雄, 『中國古代の家族と國家』, 京都:東洋史研究會, 1968 ; 池田末利, 앞의 책 참고.

64) 『說問解字』 “社, 地主也” 『예기』의 공영달의 疏에 의하면 社에서는 토에 제사지낸다는 것은 五土에 제사지내는 것으로 山林, 川澤, 丘陵, 墳衍, 原隰을 말한다고 하였다.(『禮記注疏』 권25 「郊特牲」 11, “土, 爲五土, 山林川澤 丘陵 墳衍 原隰也, 以時祭之, 故云社祭土.”)

다 社를 세우는데, 각각 그 땅에 알맞은 나무를 사용하여 신주를 세운다고도 하였고,<sup>66)</sup> 『예기』의 정현의 주에서는 대부 이하는 무리를 이루어 100家 이상의 규모를 이루면 社를 세울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里社이며, 대부는 자기만을 위해 사의 제단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였다.<sup>67)</sup>

社는 노출되어 있으며 내외로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sup>68)</sup> 그 표식은 돌이나 나무, 숲, 토단 등이 사용되었다고 한다.<sup>69)</sup> 오직 社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에만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 제사를 돕는다 하였고,<sup>70)</sup> 州와 같은 행정구역에서 社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州의 長과 같은 자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공급한 곡물을 충당한다고 하니,<sup>71)</sup> 社의 행사가 한 지역의 구성원 전체에 관계되었던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sup>72)</sup>

일단 언급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면 社는 토지신을 제사지내며, 25가 혹은 100가로 구성되는 공동체에 나무 등을 이용하여 신주를

65) 『禮記集解』 「祭法」, “大社祭畿內之地祇, 國社祭一國之地祇.”

66) 『周禮』 “二十五家爲社 各樹其土所宜木”.

67) 『禮記注疏』 권46 「祭法」23 “大夫以下, 謂下至庶人也. 大夫不得特立社, 與民族居. 百家以上則共立一社, 今時里社是也.”

68) 『禮記注疏』 권25 「郊特牲」11, “天子大社, 必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也”.

69) 守屋美都雄, 앞의 책, 273-278쪽, 282쪽.

70) 『禮記注疏』 권25 「郊特牲」11 “唯爲社事, 單出里.”

71) 『예기』의 공영달의 疏에 의하면 대부 이하 신분들은 자전이 없으니, 만일 사에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 구수에 속한 백성들이 곡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곡식이 백성들의 힘을 통해 생산된 것이라 하였다.(『禮記注疏』 권25 「郊特牲」11, “唯社, 丘乘共粢盛”者, 嚮說“祭社用牲”, 此明祭社用米也. … 黃氏云: “若天子諸侯祭社, 則用藉田之穀. 大夫以下無藉田, 若祭社, 則丘乘之民共之, 示民出力也.)

72) 守屋美都雄, 앞의 책, 265쪽.

세움으로써 社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즉 社는 일정지역의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표식이고, 또는 그 지역집단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며,<sup>73)</sup> 地神에 대한 숭배를 기반으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집단의 토착화가 진행되면서 社와 인격이 합치됨으로서 사실상 社와 祖는 합치되기도 하였다고 한다.<sup>74)</sup> 즉 점차 자연신으로서의 토지신과 人神의 결합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sup>75)</sup> 그러나 특히 민들을 위한 사의 경우 자연신으로서의 토지신의 관념이 점차 소멸되면서 각종 사회적 직능에 공을 남긴 人鬼 혹은 인격신으로서의 조상신을 지역의 수호신으로 봉사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다.<sup>76)</sup>

사실상 『삼국지』 한전에서 보이는 소도를 중국의 社와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더욱이 韓에서 보이는 소도의 大木은 북방족의 신목제의와 연관성이 많기도 하다.<sup>77)</sup> 그러나 중국의 社도, 북방족의 신목도, 韓의 소도도 표식으로서의 大木과 이를 둘러싼 일정

73) 같은 책, 259쪽, 282쪽.

74) 社에 대해 정리해보면, 社는 원시 취락의 발생과 함께 설치된 표식이었으며, 집회의 중심지였다. 그 표식은 대체로 나무였으며, 나무 아래 토단을 설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계급이 분화되고 특정한 家가 강해지면서 자신의 종묘가 社와 별도로 세워짐으로써 社의 原義가 변질된다. 社는 천자, 제후를 위한 社와 민들을 위한 社가 따로 생겨, 천자의 社와 민간의 里社가 존재했으며 천자의 社가 전적으로 地祭였다면 민간의 里社는 社의 본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같은책, 289-291쪽)

75) 社에는 句龍(后土)을, 稷에는 周棄(后稷)를 각각 모셔 제사하는데, 후토와 후직은 人神으로 配神된 인물로, 토지신과 곡신을 형상화하기 어려우므로 치수 토목이나 농사에 공이 있는 인물을 사직에 배위함으로써 가시적인 실체로 다가오게 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朴淳發, 「중국 고대 도성 廟壇의 기원과 전개」,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26쪽)

76) 같은 논문, 27쪽.

77) 서민수, 「삼국 초중기의 숲 인식 변화」, 『역사와현실』 103, 2017, 52쪽.

공간에 대한 신성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별읍에 존재했던 소도신앙은 D-1)과 같이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D-2)에 따르면 “귀신, 즉 천군이 제사지내는 천신을 제외한 신격으로 이는 곧 지신을 포함한 여러 신들에 대한 숭배와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소도를 ‘숫터’의 음차로 ‘산을 의미하는 지역’ 또는 ‘산과 관련있는 지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sup>79)</sup> 더욱 그러하다.

신라의 경우 혁거세가 양산 기슭에 있는 나정 옆 숲에서 태어났으며<sup>80)</sup> 이후 소지마립간대 혹은 지증마립간대<sup>81)</sup> 이 곳에 神宮이 들어섰다. 탈해와 관련해서도 궤짝이 들어있는 배를 끌어다가 나무 숲(樹林) 밑에 매어두고 이를 흥한지 길한지를 하늘에 고하는 장면도 있다.<sup>82)</sup> 알지도 역시 그 설화가 계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sup>83)</sup> 특히 혁거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상한 기운과 흰 말이<sup>84)</sup> 상징하는

78) 소도는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宇宙樹와 신성지역으로서의 우주산을 상징하는 것으로(徐永大, 앞의 글, 1991, 273쪽) 고조선의 단군신화에서도 나타났던 바였다. 환웅은 하늘에서 태백산 꼭대기 神檀樹 밑에 내려왔으며 이를 神市라고 했다.(『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 신단수와 초목이 무성한 주변 공간으로서의 산 혹은 숲으로 구성된 신성한 공간이었던 것이다.(같은 논문, 45쪽)

79) 徐永大, 앞의 글, 1991, 267-268쪽. 서영대는 소도는 ‘숫터’의 음역으로, ‘蘇’는 ‘숫’ 내지 ‘소슬’의 음차이고 ‘塗’는 터의 음차라는 ‘소도=숫터’ 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8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81)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소지마립간 9년(487)에 신궁을 설치했다고 하나,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9년 2월) 제사지에는 지증왕대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이에 대해 소지마립간대 처음 설치하였으나 제도화되지 않았다가 지증왕대부터 즉위 직후에 행하는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崔光植, 「新羅의 神宮 設置에 대한 新考察」, 『한국사연구』 43, 1983, 78쪽)

82) 『삼국유사』 권1 「기이」1 제4탈해왕.

8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니사금.

천신과, 양산이나 나정 옆 숲이라는 신성 지역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는 이러한 천신과 지신의 결합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알지나 탈해의 설화는 6촌의 시조전승보다는 비교적 상세하고 남아있는 편이다. 탈해는 죽어서 토함산에 안치되어 동약신(토함산신)이 되었다.<sup>85)</sup> 즉 탈해가 산신으로 표현된 것은 결과적으로 인격신으로서의 조상신인 탈해라는 구체적 실체와 자연신으로서 지신·산신의 결합을 의미하며, 탈해 세력의 중앙으로의 편입은 산신·조상신에 대한 제사의 통합과도 맞물리는 것이었다. 토함산은 애초 탈해가 경주로 진출할 때 토함산을 거쳐왔으며, 한기부의 핵심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6부로 통합된 지역이었고, 제의 역시 혁거세를 중심으로 한 시조묘(천신) 체제에 편입되었던 것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지신, 산신 세력들의 국가체제 편입과 사직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제사지에 의하면 신라의 제사는 시조묘·신궁 제사, 오묘, 사직 그리고 팔석(자)제, 선·중·후농, 풍백, 우사, 영성이 서술되고, 三山, 五岳·四鎮·四海·四瀆 이하 명산대천을 중심으로 대·중·소사로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別制 혹은 水阜에 따른 제의들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제사 전체를 등급에 따라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누었던 중국과 달리 三山 이하 명산대천만으로 대·중·소사로 편제되었다.

84) 『삼국유사』 권1 「기이」1 신라시조 혁거세왕.

85) 『삼국유사』 권1 「기이」1 제4탈해왕.

<표 3> 신라와 당의 祀典

	신라	당
종묘지제	시조묘, 신궁, 오묘, 사직	
	八槽, 선농, 중농, 후농 풍백, 우사, 영성	
대사	三山	皇天上帝, 五方上帝, 皇地祇, 神州, 宗廟
중사	五岳, 四鎮, 四海, 四瀆 俗離岳 등 6곳	日月, 星辰, 社稷, 先代帝王, 岳, 鎮, 瀆, 海 帝社, 先蠶, 孔宣父, 齊太公, 諸太子廟
소사	霜岳 등 24곳	司中, 司命, 風師, 雨師, 靈星, 山林, 川澤
別制의 祭 水阜의 祭	사성문제, 부정제, 사천상제, 일월제, 오성제 기우제, 사대도제, 압구제, 벽기제	

<표 2>는 『삼국사기』 제사지의 서술 순서 내용을 토대로 당의 祀典과 비교한 것이다. 『삼국사기』 제사지에 따르면 ‘종묘지제’로서의 시조묘·신궁, 오묘, 사직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고, 오묘, 팔석(자), 선·중·후농, 풍백, 우사, 영성이 이어지는데 구체적인 제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삼산을 비롯하여 명산대천을 대상으로 대·중·소사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그 이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제사이거나 가뭄, 홍수에 의해 치러지는 제사이다. 『삼국사기』의 찬자들이 편의에 따라 혹은 남은 기록을 그대로 재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서술의 방향으로만 파악한다면 ‘종묘지제’를 선두로 하여 삼산 이하의 대·중·소사체계와 別制 혹은 水阜에 따른 제사로<sup>86)</sup> 체계를 잡은

86) 나희라는 제일이 정해진 제사들을 정기적 제사로 칭하고, 별제나 수한과 관련된 제사를 비정기적 제사로 구분하였고, (나희라, 앞의 책, 38-39쪽) 체계미하는 제사지 내용을 종묘제사-농경제사-명산대천제사-‘別祭’로 구분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순서가 제사의 등급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고려의 길례 편성을 보자면, 대·중·소사와 잡사로 나누어져 있다.<sup>87)</sup> 잡사는 『고려사』 편찬자들이 대·중·소사 이외의 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조선의 실록에는 ‘未分等第’로 되어있던 것을 근거로, 『고려사』 편찬자들이 『통전』과 『문헌통고』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잡사라 붙여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88)</sup> 잡사에 대해서 조선 초 『국조오례의』에서는 ‘禳’이나 ‘謝’를 잡사로 칭하면서 자체의 상례가 있으나 기재하지 않는다고<sup>89)</sup> 설명하였다. 『국조오례의』에서 잡사의 의례를 생략한 이유를 유교식의 의례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려의 잡사를 유교적 의례가 아닌 전통적 제례로 파악한다.<sup>90)</sup> 결국 고려의 길례는 유교적 의례에 입각한 대·중·소사와 전통적 제례에 기반한 ‘미분등제된 제사’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sup>91)</sup>

고려보다 앞서는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제사지 편찬자들은 ‘종묘지제’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시조묘·신궁, 오묘, 사직을 운운하였다. 시기에 따라 위상의 변화 및 편차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시조묘·신궁 제사, 오묘 제사, 사직 제사를 가장 정점에 두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제사들은 고려에서는 원구, 방택, 사직, 태묘가 大祀로, 조선에서는 종묘,

---

여 전자를 농경제사, 후자를 ‘別祭’로 명명하였다.(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46-47쪽)

87) 『高麗史』 권59-63 「志」13-17 禮1-5.

88) 김철용, 『한국중세의 吉禮와 雜祀』, 경인문화사, 2007, 47-48쪽.

89) 『國朝五禮儀序例』 吉禮 辨祀, “凡祭祀之禮, 天神日祀 地祇日祭 人鬼日享 文宣王日釋奠 如禳謝等雜祀 自有常例 今不并載”.

90) 김철용, 앞의 책, 149쪽.

91) 같은 책, 143-144쪽.

사직이 大祀로 편성되어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상통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제사들의 등급은 어떻게 편성되었을까. 서술상의 순서가 등급을 나타내는 것일까.

‘종묘지제’에 이어 팔석(자)로 시작되어 선·중·후농, 풍백, 우사, 농성은 농경과 관련된 제사들로, 제일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제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에서도 중국의 것을 많이 참조한 제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up>92)</sup> 물론 중농과 후농은 중국에는 없는 제사들이기는 하나, 선농제에 준하는 제사로서 선농제와 하나의 묶음이 될 수 있는 제사들이었다.<sup>93)</sup> 특히 팔석(자), 풍백, 우사, 영성은 당의 『정관례』나 『개원례』와 규정과 동일한 제일에 행해진다.<sup>94)</sup> 서술 순서상 대·중·소사 다음으로 別制 및 水耒에 따른 제사가 이어진다. 일단 이들 제사들이 팔석(자) 이래의 제사들보다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월제의 경우, 매년 정월 원단 하례에 日神과 月神에 제사를 한다고 하였다.<sup>95)</sup> 어느 시점부터 일월제가 매년 정월에 치러졌는지, 지속적으로 정월 원단에 행해졌는지, 정월 원단에만 행해졌는지 기록상으로는 알기 어렵다. 다만 唐代 일월신은 춘분과 추분에 각각 東郊와 西郊에서 제사되며, 중사에 속하여 소사인 풍사, 운사, 영성보다 등급이 앞선다.<sup>96)</sup> 일월제는 중국과 동일한 제사일 수 있

92) 나희라, 앞의 책, 39-40쪽.

93) 나희라는 선농은 기곡제, 중농은 파중제, 후농은 성장기원제로 파악한다. (같은 책, 40쪽)

94) 채미하, 앞의 책, 52-53쪽.

95) 『北史』 권94 「列傳」82 新羅 ; 『隋書』 권81 「列傳」46 東夷 新羅 ; 『舊唐書』 권99上 「列傳」149上 東夷 新羅 ; 『新唐書』 권220 「列傳」145 東夷 新羅

96) 『大唐開元禮』 권24 吉禮 “皇帝春分朝日於東郊”, 권26 吉禮 “皇帝秋分夕月於西郊”.

『舊唐書』 권21 「志」1 禮儀1, “昊天上帝、五方帝、皇地祇、神州及宗廟為大祀, 社稷、日月星辰、先代帝王、岳鎮海瀆、帝社、先蠶、釋奠為

지만, 祭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중국의 일월제와는 다른 형식의 제사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서술의 순서로만 등급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나희라의 지적처럼 다음의 표와 같이 팔석(자), 선·중·후농, 풍백, 우사, 영성은 그 규정이 중국의 것과 동일하거나 참조한 제사라는 공통점에 의해 구분되었고, 사성문제 이래의 제사는 ‘別制’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 기준에 행해왔던 전통적인 규정에 의해 진행되었던 제의들로 파악이 가능하다.<sup>97)</sup> 그렇다면 다음의 표와 같은 체계가 가능할 것이다.

<표 4> 신라의 사전체제

시조묘·신궁, 오묘, 사직			
중국의 제사 규정과 관련	八槽 선농, 중농, 후농 풍백, 우사, 영성	대사	三山
		중사	五岳, 四鎮, 四海, 四瀆 俗離岳 등 6곳
別制, 水旱	사성문제, 부정제, 사천상제, 일월제, 오성제, 기우제, 사대도제, 압구제, 벽기제	소사	霜岳 등 24곳

기존의 신라의 국가제사는 別祀-대사-중사-소사-雜祀로<sup>98)</sup> 또는 特祀-대사-중사-소사-別祀로<sup>99)</sup> 파악되었다. 사전 체제의 성립은 제

中祀, 司中、司命、風伯、雨師、諸星、山林川澤之屬為小祀”

97) 나희라는 別制의 규정은 유교적 의례 규정이 아닌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종교 전통에 의한 규정을 받은 제사들로 파악하였다. 특히 주술적 행위나 직접적으로 신과 통하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기복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나희라, 앞의 책, 54-55쪽)

98) 辛鍾遠, 앞의 책, 97쪽.

99) 崔光植, 「新羅와 唐의 大祀 · 中祀 · 小祀 비교연구」, 『한국사연구』 95,

사를 일원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삼국사기』 제사지의 자료가 지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신라 사전의 기본적인 틀은 대체로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중국, 특히 당에서의 대사·중사·소사라는 등급에 따른 제사체계를 신라의 제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시조묘·신궁, 오묘, 사직을 정점으로 하여 왕경을 중심으로 행해졌다고 생각되는 여러 제사의 병렬과, 확대된 지배 영역의 편제와 맞물리는 삼산 이하의 명산대천에 대한 등급화라는 이원적인 형태의 사전체계를 갖췄던 것은 아닌가 한다. 삼산 이하 명산대천은 대체로 오랜 기간동안 숭앙받았던 곳이며 신라가 주변 지역을 흡수, 정복해가는 과정의 산물이었다.<sup>100)</sup> 이미 여러 논자들이 지방 세력의 편제와 대·중·소사의 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sup>101)</sup>

일찍부터 탈해 세력으로 대표되는 토함산, 사료 A-2)에서의 압독국, 사료 B에서 확인한 태백산 지역의 장악과 함께 四方을 표방함으로써 지배영역에 맞는 이데올로기로서 제사의 통합도 함께 진행되었다.<sup>102)</sup> 국가제사의 형성은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증마립간대의 ‘신라’ 국호의 제정에서 나타나는 “사방”과 진흥왕 순수비에서 나타나는 “사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기』의 정현 주에 따르면 사방은 산림, 하천과 계곡, 구릉을 담당하는 신들을 뜻하며,<sup>103)</sup> 공영달은 천하를 소유한다는 말은 천자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산림 및 하천과 계곡 중에서 천

---

1996.

100) 이기백, 앞의 책, 204-205쪽.

101) 대·중·소사 祭場의 분포도는 채미하의 논문을 참조.(앞의 논문, 245쪽 ; 앞의 책, 323쪽)

102) 김두진은 여러 부족의 시조신들이 名山大川의 신격으로 상징되어, 대사, 중사, 소사 속에 체계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金杜珍, 앞의 책, 359쪽)

103) 『禮記注疏』 권46 「祭法」23, “四方, 卽謂山林·川谷·丘陵之神也.”

하에 존재하면서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자는 천지사방에 대해 제사지내며, 이들을 百神이라고 하였다.<sup>104)</sup> 천지와 사방의 百神을 제사지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제사의 첫 걸음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소지마립간·지증마립간대에 있었던 여러 제도 정비는 법흥왕대 율령 반포로 수렴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일정 정도의 국가제사의 체계는 일단 율령의 祠舍 편제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시조묘 제사와 신궁 제사에 대한 위상과 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방’ 관념의 표방과, 산천 제사 장악의 실질적 내용이 국가제사로 편입, 체계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신라에서 명산대천과 관련된 제사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일찍부터 국가제사에 편입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한다.<sup>105)</sup>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삼산 이하 명산대천에 대한 일원적 설정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확장된 영역을 전제로 편제되었을 것이다.<sup>106)</sup> 대체로 『삼국사기』 제사지에 기록된 祀典 체계는 九州의 창설이 끝난 신문왕 5년(685) 이후부터 대동강 이남, 북한강 이북의 당으로부터 영유를 인정받은 성덕왕 34년(735) 이전에 편제

104) 『禮記注疏』 권46 「祭法」23, “有天下者祭百神者, 有天下, 謂天子也. 祭百神者, 卽謂山林川谷, 在天下利益民者也.. 天子祭天地四方, 言百神, 舉全數也.

105) 윤선태는 중고기부터 후대의 대사, 중사, 소사에 해당하는 재래의 국가의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개진하였다. 덧붙여 제사지의 대사, 중사, 소사는 이러한 재래의 국가의례에 정관례의 체제가 덧붙여진 것으로 파악하였다.(尹善泰, 「新羅 中代の 成典寺院과 國家儀禮-大·中·小祀의 祭場과 관련하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3, 2002, 107-108쪽)

106) 이기백은 원래 오악은 경주 평야 주변에 성립되었다가 백제, 고구려의 멸망 이후 지배영역이 확장되자, 국토 사방과 중앙에 해당하는 대표적 산악을 오악으로 지정하여 이를 중사로 편입되었을 것이라 하였다.(이기백, 앞의 책, 214-215쪽)

되었으며 이후에 몇 개가 첨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7)</sup>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 편제와 등급의 체계화는 실제로 신라에서 행해졌던 지방 지배와 맞물려서, 명산대천을 소재한 지역이 하나의 거점이 되어 파견된 지방관이 왕을 대리하여 제사를 지냄으로써 기존의 지역 세력에 대한 편입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108)</sup>

이러한 명산대천 제사에 대한 등급화와 체계화는 선덕왕대 사직단의 성립과도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종묘는 해공왕대 오묘가 始定되었다고 하였지만<sup>109)</sup> 신문왕 7년(687) 태조-진자-문흥-태종-문무의 오묘로 시작되어<sup>110)</sup> 원성왕대 다시 조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선덕왕대 사직단이 설치되었다. 신라에서 사직단의 설치는 비교적 늦은 시기였다. 사직단의 설치는 각 지역에서 행해졌던 지신에 대한 신앙, 제사가 중앙에 의해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社야말로 읍락의 일반 민들에 의해 치러지는 제사였다. 이를 마한에서 행해졌던 5월제, 10월제와 소도 신앙을 연관시킨 바 있다. 읍락이나 村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제사는 주·군·현에 설정된 광역의 산천제사 하에 통제될

107) 채미하, 앞의 논문, 239쪽 ; 金昌謙, 「新羅 中祀의 ‘四海’와 海洋信仰」, 『한국고대사연구』 47, 2007, 169쪽. 성덕왕 34년 정식으로 당으로부터 영유를 인정받은 대동강 이남, 북한강 이북 지역에 명산대천 제사가 없다는 이유로 하한을 성덕왕 34년으로 잡았으며, 중사의 속리악 이하 청해진 등 6곳은 이후에 편제되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108) 채미하, 같은 논문, 244쪽. 고려의 祀典에서는 名山大川이 신라가 대·중·소사에 편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雜祀에 편입되어 있다. 고려의 산천제사의 위상 격하는 중앙에서의 지방세력 견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이미 김철웅에 의해 고려 길례의 특징으로 지적되기는 했으나, (김철웅, 앞의 책) 신라와 고려의 명산대천의 위상 차이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109) 『삼국사기』 권31 「잡지」1 제사.

11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신문왕 7년 4월.

수 있으며, 이러한 산천제사의 장악이야말로 각 지역에서 행해졌던 지신 신앙 및 제사가 중앙에 의해 조직화되었던 사정이 대·중·소사의 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소지마립간 혹은 지증마립간대에 설치된 신궁이 있었다. 신궁의 성격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신궁이 시조묘를 이어 신라 하대까지 즉위의례와 관련하여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조 탄생의 신성성과 아우르는 천지신에 대한 제사로,<sup>111)</sup> 신궁의 지신에 대한 제사와 명산대천의 대·중·소사가 일정 정도 공유됨으로써 사직의 설치를 더디게 했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sup>112)</sup> 그 중에서도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로서 전승되는 선도산성모의 위상도 사직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모가 오랫동안 이 산에 머물면서 나라의 일을 도와주고 지키니, 신령스럽고 기이한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에 이어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항상 三祀의 하나로 삼았으며, 그 차례는 여러 망제의 위에 있었다.”라 하였다.<sup>113)</sup> 여기서 삼사는 대·중·소사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국가 제사 체계인 祀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sup>114)</sup> 더구나 그 위상이 여러 망제(오악, 사진, 사독) 위에 있다고 한 것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가진 제사였음이 틀림없다.<sup>115)</sup> 막상 『삼국사기』 제사지

111) 「新羅의 神宮設置에 대한 新考察」, 74쪽.

112) 신종원은 사직단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종래의 地祭를 고수하였기 때문이며, 선덕왕대 사직을 설치함으로써 오묘제와 함께 형식적인 사대에서 실질적인 사대로 이행된 것으로 이해한다.(신종원, 앞의 책, 87쪽) 한편 김두진은 사직단을 신궁의 변형으로 파악한다. 신궁에서 알영 시조 전승과 명산대천에 대한 총괄적 제사가 행해졌고, 지신계 신앙을 국가적 제의로 조직화하면서 사직단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金杜珍, 앞의 책, 340-341쪽)

113) 『삼국유사』 권5 감통7 선도성모수희불사.

114) 이장웅,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신라사학보』 38, 2016, 243쪽.

에는 선도산, 즉 西述은 小祀로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사지의 편제가 지속적으로 들고 나가거나 조정되었던 것들을 반영했을 것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의 내용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 특히 선도산 성모에 대한 제사가 지신 제사의 역할을 일정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역할은 사직이 설치됨으로써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었다. 결국 신문왕대 오묘가 세위짐으로써 종묘가 성립되자, 지신을 총괄할 수 있는 제사로서 사직의 설치가 선덕왕대에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 IV. 맺음말

문제의 시작은 『삼국사기』 제사지에 나타나는 신라의 국가제사 편제였다. 일찍부터 祀典 체계의 성립 시점부터 각 제사의 성격 등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三山을 비롯한 명산대천만을 중국의 사전체계인 대·중·소사로 편제했다는 점과 비교적 늦은 시점으로 생각되는 선덕왕대 사직의 설치였다. 신라 사전의 특징이자 완결점으로 보이는 산천제와 사직제는 신라의 국가 발전과 맞물려서 오랜 시간동안 조직화된 제사였다. 산천신과 지신이라는 공통의 성격을 지닌 이들 제사를 어떻게 국가제사로 편입할 수 있었는가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는 신라의 지배 영역의 확장을 통한 제사의 통합이라

---

115) 이장웅은 시조모 사소(선도성모)에 대한 제사가 三祀(대·중·소사) 위에 있는 최고의 국가제사로 천지신을 모신 신궁제사에서 혁거세, 알영과 함께 배위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진평왕대 이후 불교의 융성으로 그 위상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소사에 속한 산신으로 편제되었다고 지적하였다.(같은 논문)

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신라가 주변의 소국을 병합하고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은 왕의 순수나 순행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에서의 순수나 순행이 중국 고대사회에서 행해졌던 순수나 순행을 수용하였는가는 차치하더라도 대체로 중국의 순수나 순행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왕의 정치적 행위임을 틀림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이사금기에 순수나 순행과 함께 행해졌던 望祭에 주목하였다. 望은 실질적인 지배 영역을 주요 산천으로 구현한 개념이었다. 순수나 순행에 동반되는 망제는 실질적인 지배력 확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주변 산천을 제사지냄으로써 지역의 제사도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망제는 ‘사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 소지마립간대·지증마립간대~진흥왕대에 걸쳐 나타나는 ‘사방’은 중앙을 중심으로 지배영역에 대해 사방을 구성하는 천하관이 등장이며, 이는 법흥왕대 율령에 일정정도 구체성을 가졌으리라 추정된다.

한편, 고대국가로 형성,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하늘의 후손이자, 왕실의 조상으로서 위상을 갖고 지배세력 내에서 이를 공유, 구심점으로 작동했으며, 점차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제사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 몇 차례의 통합과 흡수를 거치게 된다. 각 지역에서의 제사는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마한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읍락에서 행해졌던 5월, 10월제나 소도 신앙 그리고 더 넓게는 산신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소도 신앙이나 산신신앙이 중국의 社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넓은 범주에서 신성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일정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에서도 양산 기슭이나, 계림, 토함산 등이 혁거세, 알지, 탈해와도 연관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중앙으로 편입됨으로써 계서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이었다. 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명산대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소사의 편성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제사와는 이원적 체계로 祀典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신궁의 지신에 대한 제사와 명산대천의 대·중·소사가 일정 정도 공유됨으로써 사직의 설치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선덕왕대 완성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논문접수 : 2018.12.20., 심사시작 : 2018.12.29., 심사완료 : 2019.1.10.]

## <참고문헌>

### 사료 및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三國志』, 『舊唐書』, 『新唐書』.

『周禮』, 『禮記』.

### 단행본 및 논문

金杜珍,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일조각, 1999.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김철웅, 『한국중세의 吉禮와 雜祀』, 경인문화사, 2007.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盧鏞弼,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일조각, 1996.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1992.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전덕재, 『新羅六部體制 研究』, 일조각, 1996.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_\_\_\_\_, 『한국 고대 국가제의와 정치』, 혜안, 2018.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姜辰垣, 「高句麗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金瑛河, 「新羅時代 巡狩의 性格」, 『민족문화연구』 14, 1979.

金龍溱, 「秦·漢 帝國의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金昌謙, 「新羅 中祀의 ‘四海’와 海洋信仰」, 『한국고대사연구』 47, 2007.

朴淳發, 「중국 고대 도성 廟壇의 기원과 전개」,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 박승범, 「삼국의 국가제의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서민수, 「삼국 초중기의 숲 인식 변화」, 『역사와현실』 103, 2017.
- 서영대,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_\_\_\_\_, 「고구려의 국가제사-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0, 2003.
- 尹善泰,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大·中·小祀의 祭場과 관련 하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3, 2002.
- 이장웅, 「백제 사비기 국가제사와 불교사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_\_\_\_\_,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신라사학보』 38, 2016.
- 이현주, 「신라 중고기 왕실여성과 불교-영흥사의 창건과 도유나랑을 중심으로-」, 『사림』 60, 2017.
- 임평섭, 「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와 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북한 산비를 중심으로 살펴본 巡狩 行적에서의 祀-」, 『신라문화』 43.
- \_\_\_\_\_, 「신라 진흥왕대 巡狩의 정치사회적 목적-신라 중앙의 정치 구도 변화와 순수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사림』 62, 2017.
- 조우연, 「4-5세기 고구려 국가제사와 불교신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채미하,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2007.
- 최광식, 「新羅 大祀·中祀·小祀의 祭場 研究」, 『역사민속학』 4, 1994.
- \_\_\_\_\_, 「新羅와 唐의 大祀·中祀·小祀 比較연구」, 『한국사연구』 95, 1996.
- 洪承賢, 「中國 古代의 移風易俗-皇帝와 士大夫의 關係를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浜田耕策, 「新羅の祀典と名山大川の祭祀」, 『响沫集』 4, 1984.

守屋美都雄, 『中國古代の家族と國家』, 東洋史研究會, 1968.

池田末利, 『中國古代宗教史研究』, 東海大學出版會, 1989.

<Abstract>

## The Expansion of Silla's Ruling Space and the Integration of Sacrificial Rituals

Han, Young-hwa

Relatively many studies on the nature of each rit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time of sacrificial rituals code(祀典) system of Silla have been conducted. The most notable feature is that only noted mountains and large streams, including Samsan(三山), were organized into Chinese sacrificial rituals code system of great, medium and little sacrificial rituals. Another notable feature is the installation of the Sajik(社稷)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deok(宣德王), which is thought to be relatively late. The rites for mountain and stream and Sajik were organized for a long time meshed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of Silla.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the rituals for the God of mountain and stream(山川神) and earth God(地神) into the national rituals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aspect of the expansion of the ruling space of Silla and the integration of the sacrificial rituals attached to the expansion.

The process of merging the neighboring small states and expanding the territory of Silla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articles of Sunsu(巡狩) or royal tours(巡幸). Assuming that Sunsu or royal tours of Silla was a political act almost similar to that of China,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angje(望祭), which was performed with Sunsu or

royal tours in Yisageum(尼師今) period. Mang(望) was a concept that embodies the practical ruling space in primary mountains and streams. In addition to securing substantial ruling power over the Sunsu or royal tours areas, it was also intended to integrate local rites by performing the rites for surrounding mountains and streams. Therefore, Mangje appeared as an abstract concept of the Four Directions(四方).

Meanwhile, in the Silla's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ancient state, the force with Hyeokkeose(赫居世) as a center figure had a status as a descendant of the sky and an ancestor of the royal family, and it was shared within the ruling forces and functioned as a pivot. The rites for earth God can be found in the rites in May and in October or Sodo(蘇途) beliefs performed in Samhan(三韓), and these beliefs has the same tendency with the beliefs of the God of mountain and stream. The rites for the earth God and the God of mountain and stream were eventually in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hierarchized, therefore great, medium and little sacrificial rituals only for noted mountains and large streams were organized.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sacrificial rituals code of dual system was organized with the presence of the rituals not included above. Eventually, by sharing the rituals for earth God in the Shinkoong(神宮) and the great, medium and little sacrificial rituals of noted mountains to a certain degree, the installation of Sajik seems to be completed at the relatively late perio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deok.

Key words : mangje(望祭), the Sajik(社稷), The rites for mountain and stream, sacrificial rituals code(祀典), great, medium and little sacrificial rituals(大祀·中祀·小祀)